

漢字檢索法

森賀 一惠 著

〈日本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朴 熙 永 譯

序 言

辭典 또는 字典이나 索引 등을 檢索한다는 일은, 어떠한 方法에 依하여 排列되어 있는 文字 또는 文字와 連結되어 있는 것 中에서 그것이 排列되어 있는 規則에 關한 知識을 基礎로하여 目的하는 文字 또는 文字와 連結된 것을 찾아 내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現在와 같이 辭典類의 情報記錄媒體는 종이로 되어 있고 사람이 그것을 한장한장 넘기면서 自己의 눈으로 情報를 읽게 되어 있는 即 文字의 檢索法은 文字의 排列法과 表裏一體가 되어 있는 것이다.

漢字와 比較對照되는 일이 많은 라틴 文字나 키리루文字 등의 알파벳(單音文字) 體系의 26 文字 33文字 등의 排列法에서는 所謂 알파벳順 한種類가 거의 獨占의이라 말해도 좋을 位置를

占하고 있고 音節文字인 日本의 假名(가나)도 現在로서는 五十音順이 一般的이고 檢索法에도 別로 變化가 없다. 그러나 漢字는 總字數가 約 五萬이라 말하고 있으며(即 諸橋轍次의 大韓和 辭典에 收錄된 字數는 49,964字가 된다) 昭和 56年(1981)內閣告示 第1號 「常用漢字表」에 依한 常用漢字만 해도 1945字가 된다. 누구를 莫論하고(적어도 辭典을 檢索하고자 하는 者라면) 記憶하고 있을것을 期待해도 좋을 一定한 順序로 나란이 늘어 놓는 일은 不可能하고 옛부터 形·音·義에 關한 屬性을 根據로 여러種의 排列法이 行하여져 왔다.

中國의 傳統的方法

中國에서 가장 오래된 辭書라고 알려져 있는 「爾雅」는 春秋時代부터 前漢初까지의 時期에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古典의 語句의 解

釋을 몰아서 義(뜻)에 依하여 分類 排列한 것으로 같은 模樣의 排列法은 前漢末의 楊雄의 「方言」, 後漢末의 劉熙의 「釋名」, 魏의 張揖의 「廣雅」 등에서도 踏襲되고 있다. 또 前漢의 史游의 「急就篇」도 第二句제와 第三句제에 「諸物, 名姓의 字를 羅列하여 部居(類로서 모은다. 門으로 나누어 類를 따로하여 所屬을 分明하게 한다)를 分別하여 混合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物名, 人名에 使用되는 字를 意義에 依하여 類로 나누어 排列하고 있으나 句末에서는 韻을 밟고 있다. 이것은 識字教科書로서 記憶하기 쉬워야 하는것이 必要하였기 때문에 「急就篇」을 代身하는 梁의 「千字文」이라던가 宋의 「三字經」等 後世의 識字教科書도 記憶하는데 適切한 어떠한 노래와 같은 排列로 되어 있다. 特히 「千字文」은 重複된 字도 없고 가지런하게 內容이 있는 아름다운 글귀로서 「天地玄黃」으로 시작되는 그 字의 排列은 자주 數字의 番號代身으로 使用되는 일도 있다.

紀元100년에 完成한 許慎의 「說文解字」는 字形(小篆에 基礎를 두었음)의 圖書라고 말하고 있으나 540의 部首別排列은 말하자면 漢字의 義符別排列이고 形을 媒介로 하고 있는 보다 客觀性이 높은 意義分類排列이라고도 생각한다. 「說文解字」에서는 部首排列은 「形에 依한 系聯」이지만 梁의 顧野王之 「玉篇」에 이르러서는 542의 部首의 排列까지도 「義에 依한 系聯」되고 있다. 같은 “部首”라고 말하는 것으로 遼의 「龍龕手鏡」(997年. 後에 宋의 太祖의 祖文의 諱인 “敬”과 同音의 “鏡”을 避하여 「龍龕手鑑」이라 改稱)은 242部로 줄고 반드시 漢字의 義

를 部分이 아니고 字形(楷書에 基礎를 둔)의 類似的한 것에 依하여 分類되고 部首 및 같은 部首內의 字의 排列은 四聲(平上去入)順으로 되어 있다.

또 唐代에 있어서의 楷書體의 發達에 依하여 筆劃이 明確하게 되고 楷書의 筆形에 依한 特殊한 分類排列法의 「字通」(十三世紀初)이 나타난 外에 劃數를 세기 쉽게 되었던 일로 劃數昇順排列이 보이게 되었다. 明代의 「字彙」(1615年序)는 214의 部首와 같은 部首內의 字를 함께 劃數昇順으로 排列하고 部首의 目次의 뒤에 붙혀진 「檢字」도 部首가 알기 어려운 字를 劃數의 昇順으로 늘어놓아서 檢索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이 「字彙」에서 시작된 部首別劃數排列方法은 「正字通」(1671年頃)을 거쳐서 「康熙字典」(1716年)에 이른다.

字形中에서 音聲을 나타내는 部分 即 聲符가 같은 字를 한곳에 몰아서 늘어 놓은 것에 淸의 朱駿聲의 「說文通訓定聲」이 있는데 聲符는 上古韻의 十八部(名稱의 豐升臨謙頤孚小需隸隨解履泰乾坤鼎壯은 易이 卦名에서 따온 것이다)로 나누어 排列되어 있다.

韻文은 만들기 爲한 參考書 또는 規範으로서의 役割이 컸던 韻書는 押韻可能한 다시 말해서 韻(一音節의 漢字音으로 부터 처음의 子音을 除外한 나머지部分)이 같은 文字마다 띠어서 排列한 것으로 同韻의 文字中에서는 韻子音이 같은 字가 한곳에 몰이게 되어 있다. 純粹하게 音聲의 屬性만에 基礎한 分類排列인 것이다.

以上이 中國의 傳統的인 漢字排列法의 主된 것이다. 其中에서 「康熙字典」이라고 말하고 있

는 部首別劃數昇順排列은 檢索을 爲한 排列法으로서는 舊中國에서는 最高의 到達點이었다. 現在에는 漢和辭典의 本文排列의 거의가 이 方式을 採用하고 있다.

유럽의 新檢字法

中國에서 「康熙字典」이 刊行된後 清朝末에 이르기까지 그 影響力은 絶對的인 것으로서 그 部首法도 字形分類의 最高의 權威를 지키고 있었으나 같은 時期의 유럽에서는 中國學者들이 그것과는 全然 다른 字形分類法을 考案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露西亞의 V.P. Vasiliev가 考案한 字形方式 (Graficheskaja sistema)도 그 中の 하나로서 Vasiliev는 1844년과 1867년에 刊行된 字典에서 이 方法과 音聲, 聲符에 依한 分類를 併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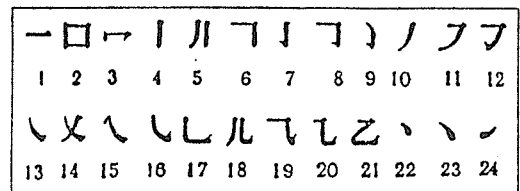
I. M. Oshanin이 主編한 「華俄辭典」(Kitaisko-Russkii Slovary 〈國立外交與民族文辭典出版局〉 1952年 修訂版 1955年)에서는 字의 排列에 있어서 一貫해서 이 傳統의인 字形方式만 이 使用되고 있고 그 初版의 序文에 依하면 이 方法은 露西亞의 中國學者에게 있어서는 가장 親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辭書에서의 字形方式에 依한 排列法의 大略을 述한다면 다음과 같은것이 된다.(修訂版 凡例 第14條에 依據하였다.)

① 漢字가 萬若 正方形의 틀에 끼워져 있는 것이라고 假定하고 그 假想의 正方形의 右側下角에 있는 筆劃을 分類의 基本으로 한다. 萬若

右側下角에 筆劃이 보이지 않으면 垂直의 下側 또는 左下側에 늘어 뜨려진 顯著한 筆劃을 基本으로 한다.

② 活字體의 漢字로 부터는 特徵的인 筆劃의 型을 24個 抽出할 수 있으나 그것이 24部 (Razdel)의 分類의 基礎가 되는 基本筆劃 即 字形알파벳(graficheskii alfavit)로서 알파벳 順으로 늘어 놓으면 圖1과 같이 된다.

圖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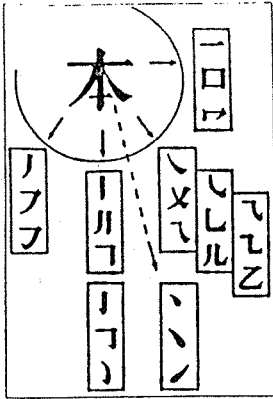


Отделы (部)	I	II	III	IV	V
Направления (方向)	—	↓	↙	↘	↖
Основные черты (基本筆型)	— □ →	↓ ↙ ↘	↖ ↗ ↘	↙ ↘ ↖	↗ ↘ ↖
Количество основных черт (基本筆數)	3	6	3	9	3

③ 表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4部の 基本筆劃을 “— ↓ ↙ ↘”의 五類(Otdel)로 모을 수가 있어 이 五類는 “本”이라는 字의 짧은 橫劃을 “↘”이라고 한다면 이字에 統合되어 있으므로 類와 部의 關係는 圖2와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④ 24部는 더욱더 60群(gruppa)으로 細分化 된다. 群以下의 水準에서의 派生的文字素의 排列原則은 다음과 같다.

圖 2



처음에 附加部分이 없는 “一” “丨” “丨”과 같은 基本的인 文字素를 놓는다.

다음은 이어서 附加部分이 基本的文字素의 위라던가 側面에 있으면서 그것과 엇갈리지 않는 “上, 土”, “丨, 丁”, “卜, 下”와 같은 派生的文字素가 놓인다.

끝으로 附加部分이 基本的文字素와 交差하는 “子, 子”와 같은 派生的文字素가 온다.

위의 第2項과 같이 派生的文字素가 同一한 基本的文字素에 붙어 複數가 되는 경우 附加部分이 基本的文字素에 對하여 左側에 있는 것 左側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의 順으로 排列된다. 예를 들면 “目”으로 부터 派生하는 것은 “相, 眉, 冒”의 順으로 되고 더욱이 “相”으로 부터 派生하는 것은 “湘, 廂, 霜”의 順이 된다. 附加部分의 位置가 같다면 附加部分의 字形알파벳 順으로 늘어 놓는다. 예를 들면 “登”의 派生的文字素는 “證, 橙, 燈, 澄”의 順이 되지만 字形알파벳(圖1參照)에서는 “言”이 2番째, “木”이 13番째 “火”가 23番째 “彳”가 24番째의 字

形에 該當하기 때문이다.

「華俄辭典」에서는 책面紙部分에 類, 部, 群과 面數對照의 索引(圖3)이 있고 各面의 欄外 上部角에는 部마다 基本筆劃의 形이 記錄되어 있어 檢索의 案內가 되고 있다. 이것은 日本의 漢和辭典의 部首索引의 경우와 같은 趣旨이다.

또 P.Poletti는 「華英萬字典」(a Chinese and English Dictionary,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 上海, 1907)에서 字形分類로서는 「康熙字典」의 214部首를 採用하면서도 同一部首內의 排列에서는 「康熙」方式의 劃數昇順을 取하지 않고 雙部首法(bi-radical system)이라는 獨自의 排列檢索法을 考案하고 있다. 이 方式에서는 漢字의 部首를 除外한 나머지 部分으로 부터도 部首와 같이 생각되는 形을 뽑아 내서 그것을 副部首(Sub-radical)로 하고 部首를 「康熙」의 順으로 놓은 다음 部首와 같은 文字는 또 다시 副部首의 「康熙」部首順으로 排列한다.

이와 같은 19世紀中葉 부터 20世紀初에 걸쳐서 유럽의 中國學者들의 新檢字法考案의 試圖는 新中國에 있어서의 檢字法의 出現을 促進케 하는 要因의 하나로 된 것이다.

УКАЗАТЕЛЬ К ОТЫСКАНИЮ НЕРОСЛНФОВ В СЛОВАРЕ

I	1.-	1	1 一旦且 20 宜登真不 23 上工 27 袋袋匪匪 32 士士去去出 39 望望望 43 壬壬		
		2	45 王全主 51 金生金 57 箱箱匪匪 61 真		
		3	62 止匪 64 正匪 66 丘丘 67 芝匪		
		4	68 芝匪 69 匪匪文 73 匪匪匪匪		
		5	77 且匪 80 匪匪匪 82 匪匪匪 88 匪		
		6	84 亡 89 匪匪 92 匪匪 93 匪匪 94 匪匪 96 匪匪 101 匪匪		
		7	103 口匪 104 山匪 107 匪匪 111 匪匪		
		2.口	8	112 口匪 121 匪匪 130 匪匪 133 匪匪 匪匪 匪匪 143 匪匪 匪匪 152 匪匪 156 匪匪 162 匪匪 匪匪 166 匪匪 匪匪 172 匪匪 匪匪 177 匪匪 180 匪匪 183 匪匪 匪匪 190 匪匪 匪匪 195 匪匪	
		9	196 口匪 198 匪匪 202 匪匪 匪匪 207 匪匪 209 匪匪		
		3.-	10	209 匪匪	
II	4.1	11	209 上下下 212 下斤斤 216 匪匪 匪匪 220 匪匪		
		12	222 匪匪 224 匪匪 227 匪匪 匪匪 229 匪匪 匪匪 232 匪匪 匪匪 235 匪匪		
		13	235 匪匪 匪匪 237 匪匪 匪匪 241 匪匪 匪匪 245 匪匪 匪匪 249 匪匪 匪匪		
		14	252 匪匪 匪匪 256 匪匪 匪匪 260 匪匪 匪匪 263 匪匪 匪匪		
		15	264 匪匪 匪匪 266 匪匪 匪匪 272 匪匪 匪匪		
		16	275 匪匪 匪匪 277 匪匪 匪匪 279 匪匪		
		5.几	17	279 匪匪 匪匪 282 匪匪 匪匪 284 匪匪	
		18	285 匪匪 匪匪 287 匪匪 匪匪 288 匪匪		
		6.7	19	288 匪匪 匪匪 290 匪匪	
		7.1	20	290 匪匪 匪匪 293 匪匪 匪匪 297 匪匪 匪匪 300 匪匪 匪匪 304 匪匪 匪匪 308 匪匪 匪匪 311 匪匪 匪匪 314 匪匪 匪匪 319 匪匪 匪匪 322 匪匪 325 匪匪 匪匪 328 匪匪 匪匪 332 匪匪 匪匪 336 匪匪 匪匪 340 匪匪 342 匪匪 343 匪匪 346 匪匪 匪匪 349 匪匪	
8.1	22	349 匪匪 351 匪匪 匪匪 353 匪匪 匪匪 359 匪匪 匪匪 363 匪匪			
	23	354 匪匪 匪匪 367 匪匪 匪匪 369 匪匪 匪匪 371 匪匪 匪匪 373 匪匪 匪匪 378 匪匪 匪匪 381 匪匪 匪匪 383 匪匪			
	24	383 匪匪 匪匪 387 匪匪 匪匪 389 匪匪 匪匪 392 匪匪 匪匪 396 匪匪 匪匪 399 匪匪			
	25	400 匪匪 匪匪 402 匪匪 匪匪 405 匪匪 匪匪 407 匪匪 匪匪 410 匪匪 匪匪 413 匪匪			
	26	413 匪匪 匪匪 414 匪匪 匪匪			
	9.)	27	417 匪匪		
	III	10. /	28	417 多少 421 匪匪 匪匪 423 匪匪 匪匪 425 匪匪	
			29	426 多少 427 匪匪	
			12. /	30	428 匪匪 匪匪 431 匪匪 匪匪 434 匪匪 匪匪 438 匪匪 匪匪 440 匪匪 匪匪 444 匪匪 匪匪 445 匪匪 匪匪 449 匪匪 匪匪 450 匪匪
			31	451 匪匪 匪匪 匪匪 匪匪 匪匪 454 匪匪 匪匪 455 匪匪 匪匪 461 匪匪	
32			462 匪匪 匪匪 匪匪 464 匪匪		
33			464 匪匪 匪匪 468 匪匪 匪匪 470 匪匪 匪匪 474 匪匪		
IV			13. \	34	474 匪匪 匪匪 478 匪匪 匪匪 480 匪匪 匪匪 482 匪匪
				35	482 匪匪 匪匪 488 匪匪 匪匪 490 匪匪 匪匪 493 匪匪 匪匪 495 匪匪 匪匪 497 匪匪
				36	498 匪匪 匪匪 502 匪匪 匪匪 503 匪匪
				37	504 匪匪 匪匪 507 匪匪 匪匪 510 匪匪 匪匪 512 匪匪 匪匪 517 匪匪 匪匪 521 匪匪 匪匪 523 匪匪
	38	524 匪匪 匪匪 525 匪匪 匪匪 526 匪匪			
	39	527 匪匪 匪匪 530 匪匪 匪匪 534 匪匪 匪匪 536 匪匪			
	40	536 匪匪 匪匪 539 匪匪 匪匪 541 匪匪			
	41	541 匪匪 匪匪 544 匪匪 匪匪 550 匪匪 匪匪 554 匪匪 匪匪 559 匪匪			
	14. x	42		560 匪匪 匪匪 563 匪匪 匪匪 567 匪匪 匪匪 572 匪匪	
	43	572 匪匪 匪匪 574 匪匪 匪匪 578 匪匪 匪匪 582 匪匪 匪匪 587 匪匪 匪匪 583 匪匪 589 匪匪 593 匪匪 604 匪匪 匪匪 609 匪匪 匪匪 614 匪匪 匪匪 617 匪匪 620 匪匪			
15. \	44	621 匪匪 x 623 匪匪 匪匪 627 匪匪 匪匪 629 匪匪			
	45	630 匪匪 匪匪 634 匪匪 匪匪 639 匪匪 匪匪 646 匪匪 匪匪 651 匪匪 匪匪 655 匪匪 匪匪 658 匪匪			
	16. \	46	659 匪匪 匪匪 663 匪匪 匪匪 667 匪匪 匪匪 672 匪匪 匪匪 676 匪匪 匪匪 679 匪匪 匪匪 681 匪匪		
	17. /	47	682 匪匪 匪匪 685 匪匪 匪匪 687 匪匪 匪匪 691 匪匪 匪匪 695 匪匪 匪匪 697 匪匪 匪匪 704 匪匪		
	48	703 匪匪 匪匪 707 匪匪			
	49	707 匪匪 匪匪 709 匪匪 匪匪 711 匪匪 匪匪 714 匪匪 匪匪 717 匪匪			
	18. /	50	717 匪匪 匪匪 721 匪匪 匪匪 724 匪匪 匪匪 729 匪匪 匪匪 732 匪匪 匪匪 733 匪匪 匪匪 734 匪匪 匪匪 738 匪匪		
	51	739 匪匪 匪匪 741 匪匪 匪匪 743 匪匪 匪匪 745 匪匪			
	19. /	52	746 匪匪 匪匪 748 匪匪 匪匪 751 匪匪		
	20. /	53	752 匪匪 匪匪 754 匪匪 匪匪 755 匪匪 匪匪		
21. /	54	757 匪匪			
V	22. \	55	760 匪匪 匪匪 767 匪匪 匪匪 772 匪匪 匪匪 776 匪匪 匪匪 779 匪匪 匪匪 783 匪匪 匪匪 787 匪匪 匪匪 790 匪匪 匪匪 793 匪匪 匪匪 799 匪匪 匪匪 804 匪匪		
		56	806 匪匪 匪匪 811 匪匪 匪匪 812 匪匪 匪匪 816 匪匪 匪匪 821 匪匪 匪匪 823 匪匪 匪匪 827 匪匪 匪匪 833 匪匪 匪匪 838 匪匪 匪匪 842 匪匪 匪匪 846 匪匪		
		57	846 匪匪 匪匪 852 匪匪 匪匪 856 匪匪		
		58	856 匪匪 匪匪 860 匪匪 匪匪 865 匪匪 匪匪 867 匪匪 匪匪 868 匪匪		
		59	870 匪匪 匪匪 873 匪匪 匪匪 876 匪匪 匪匪 882 匪匪		
		23. \	58	882 匪匪 匪匪 884 匪匪	
		24. /	60	882 匪匪 匪匪 884 匪匪	

ПРИМЕЧАНИЕ: Цифры указывают номера страниц словаря, на которых находится последующий за формой верогафн.

新時代의 檢索法

民國이 된 以後는 康熙帝의 勅命을 받드러 編纂된 「康熙字典」의 方法도 絶對性이 사라지고 V. P. Vasiliev, P. Poletti 等 19世紀以後의 유럽의 中國學者들의 影響도 있어 簡便한것을 바라 새로운 漢字의 檢索法이 잇달아 考案되었다. 總數는 數百이 된다고 하지만 역시 形·音·義의 三要素의 特徵 및 그 짜맞춤에 依하여 分類排列의 範圍를 넘지 않고 基本的으로는 傳統的方法과 다른 點은 없다. 다만 音聲에 基礎하는 것은 發音表示法의 革新에 따라 注音字母順, 로마字(웨드式, 拼音式等)알파벳順等의 排列法이 나타나 字形에 基礎한 것은 從來의 部首法과 같지 않은 字形分類外에 그것에 數字를 주는 號碼法이라던가 쓰는 順에 關係되는 起筆法等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새로운 發音表示法에 依한 音聲順排列中에는 拼音式發音表示에 익숙해 있는 現代人에게는 拼音式이 가장 便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拼音式에서는 調音部位의 같은 無氣音과 有氣音이 b와 p, d와 t, g와 k, j와 q, zh와 ch와 같이 表示되어 로마字알파벳順排列에서는 흐터져 버리게 되지만 이에 對하여 웨드式로마字알파벳順 및 注音字母方法은 그것이 가깝이에 놓이게 되는等音聲學으로 合理的인 面도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日本에서는 옛부터 있었던 五十音圖에 基礎한 五十音順이 明治時代부터 イロハ(이로하)順으로 바뀌어 알파벳順과 같은 實用性을 갖기 시작하여 漢和辭典에는 五十音 順音訓索引이 붙여지게 되었다.

字形에 依한 排列法은 音聲이나 意味에 比하여 漢字 그 自體에 對한 豫備知識을 必要로 하는 比率이 相對的으로 알기 때문에 新時代의 需要에 適合해서 새로히 考案된 檢字法은 大概가 字形에 基礎한 部分을 包含하고 있다. 다음은 그와 같은 檢字法中 主要한 것을 例로 들어 보기로 하겠다.

四角號碼

漢字에서 몇개(便宜上 10以下)의 基本的인 字形의 型을 抽出하여 番號를 주어 個個의 漢字의 形을 番號化해서 昇順으로 排列하여 檢索하는 方法을 號碼法(「號碼」란 番號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種類의 方法中에서 가장 일찍 發表되어 가장 널리 普及되어 지고 있는 것이 四角號碼(「四角」이란 네귀퉁이의 뜻)가 있다.

四角號碼檢索字法은 商務印書館의 編譯處處長이었던 王雲五에 依하여 考案되어 1926년에 發表되었다. 後 1930年の 「王雲五大辭典」을 시작으로 商務印書館出版의 辭書類에는 거의 이 檢索法에 依한 索引이 添付하게 되어 急速하게 普及되었다.

現在 「新華字典」「現代漢語詞典」에 採用되고 있는 四角號碼查字法은 四角號碼檢字法을 簡體字의 字體에 適合하도록 改訂한 것이다. 우선 舊檢字法을 第2次 改訂版에 依하여 記述하겠다.

①漢字의 네귀퉁이에 있는 筆劃의 形狀을 表2와 같은 10種의 筆型으로 나누고 各各 番號를 준다. 10種中에서 1, 2, 3을 單獨筆型 그밖의 것을 複合筆型이라고 稱하며 어느 便이던 取할

〈表 2〉

番 號	原 名	原 形	例	說 明
0	頭 (點 一) ナベツテ	一	言 主 广 广	獨立된 點과 獨立된 橫線이 結合된 것. 點과 一을 合한것. 所謂 撇비뚜형形이다.
1	橫 (甲 乙) コ	一 一 一 一	天 土 地 江 元 風	橫線을 本體로 한 左下부터의 撇개. 地, 江의 左下귀퉁이나 元, 風의 左下귀퉁이를 包含한다.
2	垂 (乙 丙) テ	丨 / 丨	山 月 千 則	垂直의 서있는 線(丨)을 本體로 하고, 右上부터의 撇개(/)를 包含한다.
3	點 (乙 丙) ン	、 丶	ム 之 衣	點과 合어끈것. 之의 末筆도 이것이다.
4	又 (乙 丙) 文 辨	十 又	草 杏 皮 封 川 大	두線이 交錯하는 것
5	插 (乙 丙) メキ(眞) ツラメキ	才	才 戈 申 史	한 線마다 다른 兩線以上을 꿰어있는 경우. 中, 羊, 脊等の 中央縱線도 이것이다.
6	方 (乙 丙) シカク ケテ(方)	□	国 鳴 目 四 甲 由	네 모퉁이가 갖추어진 方形(卍 등은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7	角 (乙 丙) カ 角 キ	ㄱ ㄴ ㄷ ㄹ ㅁ ㅂ	羽 門 灰 陰 雪 衣 印 宀	四隅의 어데있던 縱橫의 兩線이 接하여 귀퉁이, 갈고리를 만드는 것
8	八 (乙 丙) ハ 八	八 ㄱ	分 頁 羊 余 火 全 足 午	八字와 그 變形
9	小 (乙 丙) シヨウ	小 ㄱ ㄴ 个 卜	尖 糸 鼻 木 忙	小字와 그 變形

수 있는 경우에는 複合筆型을 優先한다.

(例) “一”은 3이 아니고 0, “寸”은 2가 아
니고 4, “ㄱ”은 2가 아니고 7, “ㄴ”은
3, 2가 아니고 8, “小”은 3, 3이 아
니고 9가 된다.

②各字의 네귀퉁이를 (1)左上 (2)右上 (3)
左下 (4)右下の 順으로 番號化하여 네자리의 數
字를 얻는다.

(例) “端”은 0212, “頑”은 0128, “載”은
4355가 된다.

③(a) 字의 上部 또는 下部에 筆型이 하나뿐
인 경우 그 番號는 左角의 番號로 하고 右는 欠
番이 됨으로 0으로 한다.

(例) “宣” “直” “首”의 上部는 各各 30,
50, 90, 50이 된다.

(b) 한번 番號化한 筆型이 다른 角에서 다시
나타났을 때에는 欠番임으로 0으로 한다.

(例) “大”의 左下角은 上部의 4를 構成하는
筆劃의 一部分이기 때문에 0이 되고 “車”
“十”의 下部도 같이 0이 된다.

④ “口” “門” “門” “行”의 꾸밈새에서 構成
되는 字는 上部에서는 꾸밈새의 筆型을 取하지
만 下部에서는 꾸밈새 内部의 筆型을 取한다.
但 꾸밈새의 外部의 上下左右에 다른 筆劃이 있
을때에는 그렇지 않다.

(例) “因”은 6043, “閉”은 7724, “衛”은
2150으로 된다. 但 “菌”은 4460 “瀾”
은 3712가 된다.

위의 4條의 本則에 添加하여 다시 4條의 附則이
있다.

I. 字體는 모두 楷書體에 依한다.

II. 番號化할때에 注意할 點.

(1) “宀” “戶” 等과 같이 点아래의 橫劃의 右側이 다른 筆劃과 連結되어 있을 경우에는 0 이 아니고 3을 取한다.

(2) “尸” “皿” “門”과 같이 方型을 構成하는 筆劃이 外側으로 延長하여 있을 경우에는 6 으로 하지 않고 7을 取한다.

(3) 角型筆劃의 兩端은 7의 再出이라 하지 않고 獨立의 筆劃으로 하여 番號化한다. “切”이라면 1722가 된다.

(4) 交叉된 筆劃은 8로 하지 않는다. “美”의 下部는 43으로 한다.

(5) “水” “小”와 같이 內部가 2 筆인 경우와 “水” “小”와 같이 外部가 2 筆인 경우에는 9로 하지 않는다.

III. 角을 取할 때에 注意할 點.

(1) 獨立 또는 平行하는 筆劃은 高低에 不拘하고 가장 左 또는 가장 右의 筆型의 角을 取한다. “非”는 1111, “肯” “浦”의 右上은 各各 1, 3, “疾”의 左下는 1, “帝”의 下部는 22이다.

(2) 가장 左 또는 右의 筆劃을 다른 筆劃이 上部로 부터 덮고 있다던가 下部에서 받치고 있다던가 하면 上部를 덮고 있는 筆劃을 上角, 下部로 부터 받치고 있는 筆劃을 下角으로 한다. “宗” “幸”의 上角은 各各 30, 40이고 “寧” “共”의 上角은 各各 20, 80이다.

(3) 두개의 複合筆劃을 取할 경우 上角에서는 높은 편 下角에서는 얇은 편을 取한다. “功”의 右上은 4, “盛” “頗”의 左上은 各各 5, 4 “鴨” “奄”의 左下는 各各 5, 7이다.

(4) 撇(※右側 위로 부터 빠친 날개)이 다른 筆劃에 依하여 받쳐지고 있을 경우 받치고 있는 筆劃을 下角으로 取扱한다. “春” “奎” “石”의 下角은 各各 60, 10, 60이고 “衣” “辟”의 左下는 各各 7, 6이다.

(5) 左上角의 撇는 左角에서 取하고 右角에서는 右에 있는 筆劃을 取한다. “勾” “鳥”의 上角은 모두 27, “釣” “鳴” “唯”의 撇는 番號化되지 않고 上角은 各各 87, 67, 60으로 된다.

IV. 四角號碼에 있어 同一한 漢字가 많을 때에는 右下角筆劃의 上方의 가장 가깝게 突出된 筆劃을 附角으로 取한다. 그 筆劃이 이미 番號化되어 있을 때에는 附角은 0이 된다. 附角號碼까지 같은 때에는 各字에 包含되는 橫型筆劃(番號化한다면 1이 되는 것, 表2參照)의 數의 昇順에 排列한다. 例를 들면 “市” “幸”은 같이 00227이지만 橫型筆劃은 “市”가 2本 “幸”가 3本이기 때문에 “市” “帝”의 順으로 늘어 놓는다.

以上이 四角號碼檢字法이다. 다음은 四角號碼查字法에서 變更된 點을 들어 본다

1. 檢字法에서는 한번 番號化된 筆劃의 再出은 모두 0으로 하였으나 新查字法에서는 하나의 筆劃이 上部와 下部에서 各各 다른 筆劃과 따로 따로의 筆型을 構成하는 경우 어느편이던 角으로서 取한다. (例)“大”의 左下는 舊法에서는 再出로 간주하여 0으로 하지만 新法에서는 下角에서 複合筆型의 8을 取한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泰” “水”의 下角도 舊法에서는 13, 23으로 하였는데 新法에서는 함께 90으로 한다.

2. 舊法에서는 上下角에 筆劃이 하나 밖에 없을

때 位置에 關係없이 左角으로서 取하고 右角을 0으로 하였는데 新法에서는 新角의 筆型이 한편으로 기울어 질때에는 實際의 位置에 依하여 番號를 주고 欠角은 0으로 한다. (例)“气”의 下角은 舊法에서는 10이지만 新法에서는 01이 된다.

3. 舊法에서는 撇 아래로 부터 다른 筆劃에 依하여 받쳐지고 있을 때 받치고 있는 筆劃을 下角으로 하였으나 新法에서는 左편을 起點으로 하는 撇은 角으로 取扱하고 있다. (例)“辟”의 下角은 舊法에서는 64인데 新法에서는 24로 된다.
4. 舊法에서는 “行”의 꾸밈새로 이루어지는 字의 下角은 內部的 筆劃을 取했는데 新法에서는 一般規則과 같이 取한다. (例)“行” “銜”은 舊法에서는 2122, 2170으로 갈라지게 되지만 新法에서는 함께 2122로 된다.
5. 舊法의 附角號碼는 新法에서는 附號라고 改稱하여 右下角의 위에 가장 가깝게 突出된 筆劃이 아니고 單지 右下角의 위의 筆劃을 取한다. (例)“工”의 附角號碼는 0이고 附號는 2가 된다.
6. 字形은 〈印刷通用漢字字形表〉의 規定을 標準으로 한다.

以上이다.

따로 胡適은 四角號碼法의 10種의 筆型의 番號를 記憶하기 쉽게 筆劃號碼對照歌를 만들어 있다.

橫一, 垂二, 三點捺. 又四, 捺五, 方框六. 七角, 八八, 九是小. 點下有橫變零頭.

中國字度擷

四角號碼法을 改良코자 하는 試圖도 많다. 基本筆型을 여섯으로 하고 取하는 角의 左上을 除外한 셋으로 줄일 三角號碼法도 其中의 하나이지만 改良案中에서 가장 代表的인것은 哈佛燕京學社(Harvard University, Harvard-Yenching Institution)가 刊行한 引得(索引)類에 採用되고 있는 中國字度擷일 것이다. 이것은 四角號碼가 記憶하는데 不便하고 同一號碼에 集中하는 字가 많고 같은 冠(字의 윗머리)의 것은 가까이 놓여 지지만 偏이 같은 것은 떨어져 버린다는 難點을 克服하기 爲하여 洪業에 依하여 考案된 檢索法이다.

「度擷」는 檢索法을 意味함과 함께 그 法이 세우는 基本筆型을 包含하는 것으로 「度」로 부터는 「>一ノ十又」, 「擷」로 부터는 「才系丁目ハ」의 合計 10種의 筆型(圖4)을 取할 수 있다. 字의 어느 部分을 番號化하느냐는 것은 이것도 「中國字度擷」의 各字를 代表하는 5種의 字體(圖5)의 어떤것을 該當시키느냐에 따라 決定되

(圖 4)

號	筆	劃	並	說	明
0	、	、	、	、	、
1	一	一	一	一	一
2	ノ	ノ	ノ	ノ	ノ
3	十	十	十	十	十
4	又	又	又	又	又
5	才	才	才	才	才
6	系	系	系	系	系
7	丁	丁	丁	丁	丁
8	目	目	目	目	目
9	ハ	ハ	ハ	ハ	ハ

(圖 5)

部號	部號	以角法序	舉例並說明
中	1		口車母勺亏尺司 凡屬其中一段其母一母(勺亏尺)皆皆不附類
國	2		問問公匡馬魁回 凡屬其中一段其母一母(問問公匡馬魁回)皆皆不附類
字	3		昌符壁字羔牙豆 凡屬其中一段其母一母(昌符壁字羔牙豆)皆皆不附類
度	4		后乍皮底友夂欠 凡屬其中一段其母一母(后乍皮底友夂欠)皆皆不附類
類	5		烈刻柝孔州州 凡屬其中一段其母一母(烈刻柝孔州州)皆皆不附類

고 또 네자리 番號의 昇順排列에 앞서 그 5種의 字體에 依하여 分置된다. 그리고 다섯자리째의 附角이 아니고 字가 包含하는 四角形의 數를 取한다. 우선 字體로 나누어 字體에 맞춘 號碼化를 行하는 것으로서 偏이 같은 字가 가까이에 놓이게 되어 名稱自體가 記憶을 도와 字體分類를 附加했기 때문에 同一 號碼의 字數가 減少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現狀으로는 四角號碼만큼 普及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哈佛燕京에서도 索引에 對하여 四角號碼라던가 拼音의 檢字表가 別冊으로 出版된 것도 있다.

起筆法

起筆法은 母筆法이라고도 稱하는데 字의 第一筆의 筆型에 依하여 分類排列하는 方法이다. 江山千古法은 名稱의 四文字의 起筆「、|/一」의 4種으로 나누고 元亨利貞法은 그것과 順序가 다르지만 같은 「一、/|」의 4種으로 나눈다. 그 밖에 「、一|」L/∠의 7種으로 나누는 寒來署往法等 많은 變種이 있으나 起筆뿐만 아니라 多數의 字를 排列檢索하기에는 不充分하여

第2筆以下도 같은 筆型에 依하여 分類排列하거나 劃數法, 號碼法等의 다른 檢索法을 併用하는 일이 많다. 예를 들면 五筆檢字法은 基本筆型 5種을 設定하여 第二筆以下도 筆形順으로 排列하여 文部省이 「外國人을 爲한 漢字辭典」(1966)은 五分類의 起筆法에 依한 獨自의 部首를 세우고 있다. 起筆法의 難點은 漢字의 書順의 客觀性을 保證할 수 없는 일이다.

結 言

現在 우리나라最大의 韓和辭典인 「大韓和辭典」에서는 本文은 「康熙」方式으로 排列하고 總劃索引, 音訓索引, 四角號碼索引을 附錄하고 있다. 이는 어떤 檢索法도 萬能일 수 없기 때문이다. 部首가 알기 힘드는 것은 索引이 아니고서는 찾기 어렵고 部首도 音도 모른다면 總劃이던가 四角號碼의 索引을 利用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경우 四角號碼를 모른다면 아무리 劃數가 많은 繁雜한 漢字일지라도 劃數를 셀 수 밖에 道理가 없다. 即 漢字檢索法이 簡便하나 아니냐는 個個人의 漢字에 對한 知識이라던가 그 檢索法에 對한 熟達度, 個個의 字의 그 檢索法에 對한 適性等의 多變數의 關數이기 때문에 一律의 으로는 말할 수 없다. 檢索法은 字에 따라 自由自在로 바꾼다던가 同時에 複數로 使用할 수 있는 辭書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든 使用하기 쉬운것이 된다고 생각된다. 機械可讀型의 辭書가 檢索法에 革命을 가져오게 할지도 모르겠다.